모든 것이 빠르게 바뀐 서울 한복판에서 숭례문은 600 여 년 세월을 본래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. 숭례문은 단순한 목조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며 뿌리이고 한국 문화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. 그런 숭례문이,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6·25 라는 혹독한 전쟁의 참화도 비켜간 숭례문이,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한 사람에 의해 속절없이 불타버렸다.

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.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중한 가치를 소홀히 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.